

이것이 '중고참' 임준혁의 책임감

팀 4연패 끊고 5승 성공...개인 최다승 타이 "긴 이닝 못던져 막내 박정수에 부담 줬을것"



승리투수가 되고도 미안한 임준혁이다. KIA 임준혁은 지난 7일 넥센과의 원정 경기에서 5이닝 5피안타 3사구 6탈삼진 1실점(비자책)의 호투를 하며 3-1 승리의 주역이 됐다. 애이스 양현종의 이탈과 4연패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어깨가 무거웠던 임준혁이었지만 위기마다 넥센 타자들을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난세의 영웅'이 됐다.

연패의 사슬을 끊으며 자신의 역대 최다승 타이인 5승에 성공한 임준혁. 그러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연패로 가라앉은 팀 분위기 탓에 마음껏 웃을 수 없었다는 것이 임준혁의 이야기다. 여기에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컸다.

임준혁은 "올 시즌 가장 긴장을 하면서 했던 경기였던 것 같다. 팀 상황도 그렇고 다음 경기 선발로 막내 박정수가 대가하고 있는 만큼 내가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다. 해줘야 하는 고참들이 못 던져줘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후배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이 선배로서 미안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이닝을 소화해서 불펜을 아껴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런 미안함이 컸다. 다음에는 더 잘해서 많이 웃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준혁은 올해로 프로 13년차다. 인천

동산고를 졸업하고 포수로 입단. 강한 어깨로 눈길을 끌며 투수로 자리를 바꿨다. 팀을 대표하는 강속구 투수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지만 뚜렷하게 자신의 입지를 굳히지는 못했다. 2009년 40경기에 나와 4.59의 평균자책점으로 5승5패2홀드를 기록한 자신의 최고기록이다.

'미완의 대기'로 지내왔던 긴 시간을 지나 이제는 마운드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중고참 선수가 됐다. '말행' 최영필(41)을 필두로 서재응(37), 김태영(35), 김광수(34) 등의 형님들이 마운드를 이끌고 있고 '막둥이' 박정수(19)와 함께 홍건희·한승혁·문경찬 등 '92 트리오'가 뒤를 따르고 있다. 임준혁(31)은 투수진의 가고 역할까지 하면서 성적과 팀워크까지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다.

부상과 부진으로 접착이 두었던 선발 자리를 내어주었던 임준혁은 지난 1일 한화전 패투와 함께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한숨을 돌렸다.

임준혁은 "내가 선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양현종, 김진우 등 돌아와 줘야 하는 선수들이 있다. 공을 던진다는 자체로 좋다. 투수는 공을 던질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이다"며 "그래도 어려웠던 경기에서 팀이 승리를 해서 다행이다. 상대의 약점은 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공을 집어넣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컨트롤이 잘됐다. 잘 던지고, 못 던지고를 반복하니까 '퐁당퐁당'의 경기력도 신경이 많이 쓰였다. 그런 우려를 털고 승리를 거둬서 마음이 가볍다. 다음 경기 준비 잘해서 꾸준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강정호 ML 첫 3루타

3루 철벽 수비·동점타...팀 4연승 견인



강정호(27·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첫 3루타를 쳤다. 강정호는 8일(한국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4번타자·3루수로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5회말에 나왔다. 1-2로 뒤진 5회말 1사 2루에서 이날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강정호는 샌디에이고 우완 불펜 마르코스 마테오의 초구 시속 140km 슬라이더를 밀어쳐 우익수 앞으로 타구를 보냈다.

이날 PNC파크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라운드가 젖어 있었고, 샌디에이고 우익수 맷 캠프가 강정호의 타구를 잡으려다 미끄러지며 공을 뒤로 흘렸다.

2루주자 닐 위커가 홈을 밟았고, 강정호는 재빨리 3루까지 내달렸다. 강정호의 이 타구는 1히트, 1에러가 아닌 3루타로 인정됐다.

한국프로야구에서 총 10개의 3루타를 기록한 강정호는 이날 메이저리그에서 첫 3루타를 신고했다.

세 번째 타석에서 행운이 섞인 3루타를 친 강정호는 최근 3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고, 6월 19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50일 만에 타점을 추가했다. 시즌 26번째 타점이다.

이날 피츠버그는 2-2로 맞선 8회말 2사 2루에서 그레고리 폴랑코가 좌중간을 뚫는 결승 3루타를 쳐 3-2, 역전승을 거뒀다. 피츠버그는 4연승 행진을 이어갔다.

/ 연합뉴스

캐디 퇴출이라니...



김세영 US여자오픈 앞두고 박세리 전 캐디 긴급 호출

여자골프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 우승에 도전하는 김세영(22·미래에셋)이 대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악재를 만났다. 미국 골프전문매체 골프채널은 김세영의 캐디 폴 푸스코가 사진 촬영이 금지된 핀 위치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가 대회를 주최하는 미국골프협회(USGA)의 제지를 받았다고 8일(한국시각) 보도했다. 이 때문에 김세영에 대한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푸스코는 이번 대회에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USGA는 그린의 핀 위치나 전장 등 코스 정보를 대회 개막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푸스코는 골프채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할 말은 많지만 대회가 끝날 때까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푸스코는 최나연(28·SK텔레콤)의 캐디를 맡았던 베테랑으로, 이번 시즌 김세영과 2승을 합작했다. 김세영은 "몹시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세영의 아버지 김정일씨는 "캐디가 USGA 사무실에 갔다가 벽 게시판에 핀위치 마크가 있어 휴대전화로 찍었다"며 "USGA 직원이 찍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을 지웠는데 그게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세영은 박세리의 캐디를 했던 스티브 셸라드를 긴급하게 구해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세리나

"이번에도"

세리나 윌리엄스(1위·미국)와 마리아 샤라포바(4위·러시아)가 Wimbledon 테니스대회(총상금 2675만 파운드) 여자단식 준결승에서 맞붙는다.

윌리엄스는 7일(현지시각) 영국 Wimbledon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여자단식 8강전에서 빅토리아 아자라카(24위·벨라루스)에게 2-1(3-6, 6-2, 6-3) 역전승을 거뒀다.

앞서 열린 경기에서 샤라포바는 코코 밴더웨이(47위·미국)를 접전 끝에 2-1(6-3, 6(3)-7, 6-2)로 따돌리고 4강에 선착했다. 윌리엄스와 샤라포바의 상대 전적은 윌



샤라포바

"이번에는"

리엄스가 17승2패로 압도한다. 2004년 투어 챔피언십에서 샤라포바가 마지막 승리를 거둔 이후 윌리엄스가 16연승 중이다. 최근 대결은 올해 호주오픈 결승으로 역시 윌리엄스가 2-0으로 이겼다.

Wimbledon에서는 2004년 결승에서 샤라포바가 승리했고, 2010년 16강에서는 윌리엄스가 샤라포바를 탈락시켰다.

윌리엄스는 지난해 US오픈을 시작으로 올해 호주오픈, 프랑스오픈 등 그랜드 슬램 3개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하며 34세 적지 않은 나이에도 절정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26연승 중이다.

/ 연합뉴스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17일 영암 개막

19일까지 국제자동차경주장

한·중·일 3개국어 함께 하는 '한·중·일 모터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7일부터 3일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개최된다.

2014년 한국과 중국 모터스포츠가 만나 양국의 우호 증진을 다졌으며, 올해는 일본이 참여하면서 동아시아 통합리그 창설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의 모터스포츠를 대표하는 'CJ 헬로모바일 슈퍼레이스'와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중국 투어링카 챔피언십(CTCC)', F1과 F3 진출을 위한 신예 드라이버 육성 시리즈인 '일본 슈퍼 FJ(Formula Junior)' 등 3개국을 대표하는 레이서가 펼쳐진다. 주최측은 스톡카, 투어링카, 포뮬러 머신을 한 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CCTV(중국 공영방송) 및 오성체육 채널을 통해 중국 전역에 방송될 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텐센트 쿼큐(Tencent-QQ)를 통해 아시아 전역에 중계돼 전방의 관광객 및 경주장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 열기가 가득한 경주장을 중심으로

/ 율현서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경기 장애인체육회 협약 전남장애인체육회와 경기장애인체육회는 7일 전남체육회관 대회실에서 장애인체육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체육 역량 강화를 위한 종목별 선수단 교류전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